

#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김홍식  
편집인: 김관목  
인쇄인: 김성희  
발행처: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경동 112-49  
우. 130-875  
홈페이지: andongkim.net

## 2005년 선조 시향 일정표

항사 선조님	요일	장소
1 충렬공(휘 방경) 지묘	11.10(목) 음10. 9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능동
2 냉평국대부인죽주박씨지단	11.10(목) 음10. 9	경북 안동시 풍산읍 회곡동
3 문영공(휘 순)지묘	11.8(화) 음10. 7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後山
4 개성은공(휘 칠립)지단	10월2번째 일요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5 장령공(휘 장)지단, 서문관정공(휘 수)지단	11.2(수) 음10.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광곡리
6 문은공(휘 구용)지단	11.2(수) 음10. 1	경기도 포천군 함수면 오가리
7 도령의공(휘 구정)지묘	11.5(토) 음10. 4	경북 의성군 의성읍 행현리
8 정간공(휘 영후)지단 영산사사공(휘 천)지단 안렴사공(휘 사렴)지묘	11.6(일) 음10. 5	충북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
9 장령공(휘 구)지단 전서공(휘 성목)지묘	11.9(수) 음10.8	충남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10 밀직사사공(휘 칠우)지단	11월(양) 첫째 일요일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사지리
11 익원공(휘 사원)지묘	11.7(월) 음 10. 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옥왕리
12 문숙공(휘 영돈)지단 삼락백(휘 진)지단 제화공(휘 익달)지단	11.7(월) 음10. 6	충남 천원군 병천면 가전리
13 판서공 휘 선 지단 대제학공휘 승용지묘 권리공 휘 후 지묘 군사공 휘 칠양 지묘	음3. 16	전남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 남산
14 안정공(휘 구역)지묘	11.5(토) 음10. 4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승리
15 부사공(휘 천순)지단	11.17(목) 음10. 16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용리
16 대호군공(휘 유)지묘	음3. 14	전남 나주군 김천면 죽촌리 상촌(옥티)
17 정의공(휘 철)지단	11.9(수) 음10. 8	경북 안동시 임동면 증평리 명성원터

\* 금년부터 충렬공 시향봉행 시간이 오전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향을 마치고 재실에서 중식을 들고 회곡동 죽주 박씨 할머님 시향을 봉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님의 시향에 경건히 참배합니다.

## “충렬공 시향에 다함께 참석합시다.”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제가 회장에 취임한 지도 벌써 수개월이 흘러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은 음력 10월 상달로 충렬공 할아버님 시향봉행과 더불어 전국의 우리 종중에서도 각 파별로 시향봉행을 하는 달입니다. 우리 안동김씨는 자고로 송조사상이 어느 문중보다도 더 높고 깊어서 옛부터 동방의 대가요 삼한의 갑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0일(음 10월 9일)은 우리 안동김씨의 중시조 이신 충렬공 할아버님의 시향봉행을 하는 날입니다. 전국의 종친께서는 서로서로 연락하시어 자랑스러운 할아버님의 시향 봉행이 성스럽고 거룩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회장에 취임하여 우리문중의 대소사를 살펴보니 각 파별로 지역별로 활발한 문중역사가 이루어 지고 있었음을 가슴깊이 느꼈으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종친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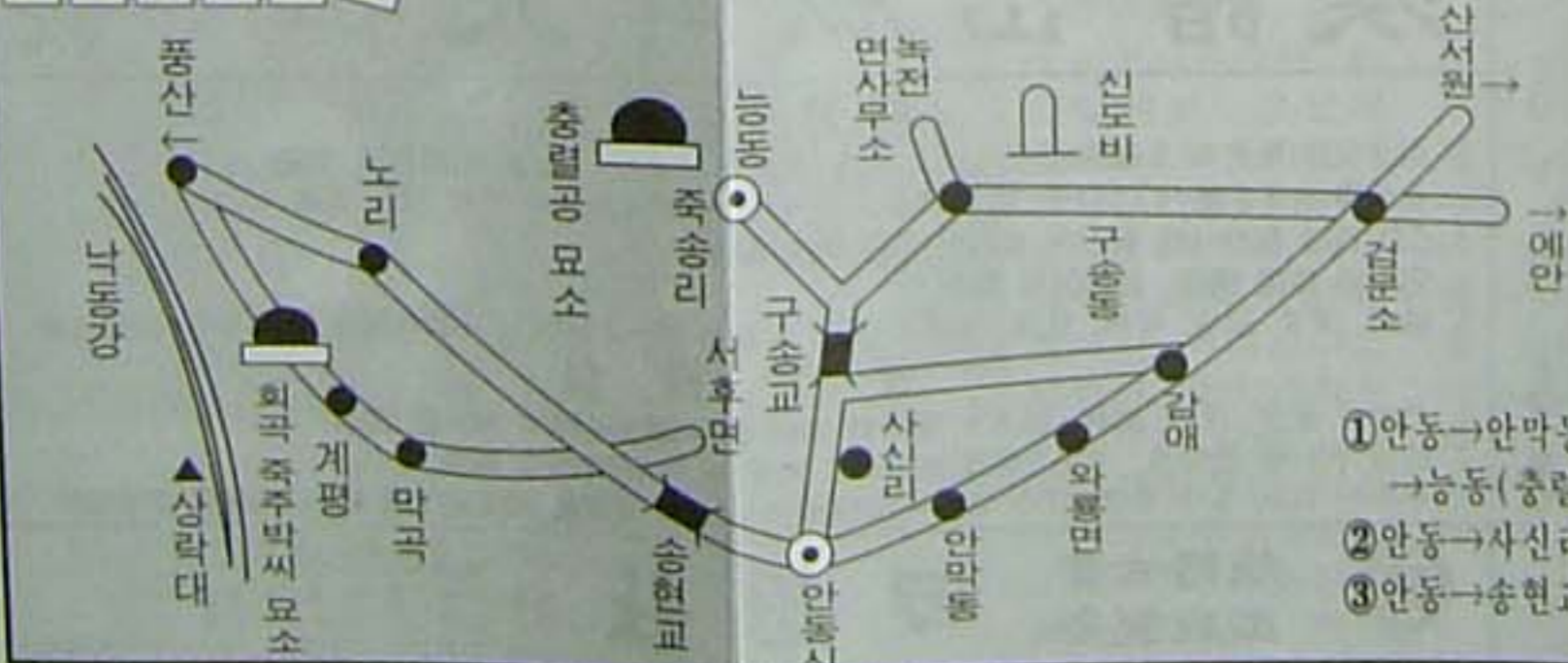
## 고려송의전 추향대제봉행



지난 10월 5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이리에 위치한 고려송의전에서 고려왕41위(태조신성황제 현종 원문대왕, 문종 인효대왕 원종 순효대왕)와 공신 陪臣 閣에는 충렬공 김방경, 무공공 복지겸, 충렬공 홍유, 장

절공 신승겸, 충절공 유금필, 충렬공 배현경, 장위공 서희, 인현공 강감찬, 문숙공 윤관, 문열공 김부식, 위열공 김취려, 문정공 조충, 평장사 안우, 추밀부사 이방실, 정담문학 김득배, 문충공 정몽주 등 16공신을 배향하고 매년 춘추향사하고 있다. 이날 200여명의 參詣者들이 모인 가운데 대제를 성대히 봉행하였다. 우리 충렬공 할아버지께 현작분헌관은 익원공과 19대손인 在瑯익원공과 회장이 현작하였으며 이날행사에는 송의전 회장인 명희 대종회 부회장 재임(익원공과회장), 봉식(익), 만길익원공과종회 총무부장 함성 관목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 찾아 오시는 길



- ① 안동→안막동→와룡동→감애→검문소→구송동 신도비 →능동(충렬공 묘소(25km))
- ② 안동→사신리→구송교→능동 충렬공 묘소(17km)
- ③ 안동→송현교→막곡→계평→회곡동 죽주박씨 묘소(12km)



### 김흔 장군 연기 대첩 비문

이곳 대박산악 정좌산은 고려 충렬왕때 연기대첩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연기대첩은 고려충렬왕 때 원나라의 반군이었던 합단적이 고려로 쳐들어와 온 강토를 유린하다가 1291년(충렬왕 17년) 5월 1일 이곳 연기 정좌산에 침입한것을 격퇴시킨 연기지역에서는 역사상 그 유래가 없었던 대승첩이었다. 적의 침입에 고려와 원나라는 연합군을 결성하여 5월2일 동이 들무렵 정좌산을 공격하였으나 적이 너무 강력하게

저항함에 우리군사들이 두려워하고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에 김흔장군은 "후퇴하는 자는 엄히 참하리라" 하고 앞장서 적의 예봉을 꺾고 진격하여 적을 크게 격퇴시켰다. 정좌산 전투에서 패주한 합단적은 남쪽으로 패주하다가 5월8일 전일을 재정비하여 원수산으로 다시 침략해왔다 원수산전투에서는 한희유장군이 앞장서 적을 공격하여 격퇴함으로써 전후 2년에 걸친 합단적의 침입은 종식을 고하였다.

이처럼 연기대첩은 합단

적의 유린을 종식시킨 결정적 승전이였음에도 후대에 이대첩을 기념할 어떠한 유적도 남겨놓지 못하였음은 참으로 아쉬운일이 아닐수 없다. 연기대첩에 참여했던 김흔장군은 안동김문의 중시조인 충렬공 김방경의 둘째아들로 비록 장군의 직계 후손들이 연기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연기대첩의 역사성을 기리고 아울러 방계의 조상을 기리는 깊은 뜻으로 이비를 새겨 멀리 후세에 전하고자한다.

공주대학교 이해준 짓고  
충렬공후에 在 山 翁  
안동김씨 연기 증친회 제공

### 書雲觀正公后 進사공 諱 宇善

공의 호는 少高요 학문 이 넓고 옛것을 좋아하시며 경제학에 뜻을 두시었다. 서기 1898년에 백성에게 농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의 상소를 올리어서 三代(中國上古에 夏의 禹와 殷의 湯과 周의 文王을 三代라 일컬음)의 정치를 하고자하시었다. 批答(왕이 신하에 下賜하시는 答書)에 그대는 事勢의 時機를 料量치 않아한것이라는 下教가 있어서 뜻한 바 일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저서에는 經濟行直(경제에 관한 저서)와 易里辨論(주역의 이치를 변론한 책)과 笑樓術(일명醫家秘決로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두산백과사전에 도 기록이 있음)과 詩文遺稿三券이 있다. 臨終하실 때에 回天無路하고 但一死而已(회생할 길은 없고 단 한번죽을 뿐이다.)라는 九字를 쓰시고 마침筆을 놓으시니 次子在協이 指(손가락)를 斷하여 그유혈을 飲下하여 回生하신 三日만에 終命하시었다 저서의가비 錄내용중 대한한의학학술 연구소 안상우(한의학박사)선임 연구원의 추천한 한페이지를 소개합니다.

病有子母兄弟 藥有君臣 佐使 人夢熟地黃 治世之良

臣 大黃附子 亂世之能將 病은 子母와 兄弟가 있고 藥은 君臣과 佐使가 있나니 人夢과 熟地黃은 太平한 세상의 良臣이요 大黃과 附子는 亂世의 능한장수이며

刑城射香鹿 眞鏡面 聖主之忠臣 牛黃阿片 信石巴豆 霸王之勇將

웅담 사랑 녹용 경면은 聖君의 忠臣이요 우왕 아편 신석 파두는 霸王(권모와 술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용장이라

忠臣烈士 至死不變 勇將 愚夫 誤用其性則反受其累

충신과 열사는 죽더라도 뜻을 변치않고 용장과 우부(어리석은사람)는 그 성품을 잘못스면 도로 그 양화를 받으리라

不執其症 勿施其藥 十診 其症 百思其藥

庶幾近可 若其不然 更有 後悔 豈不慎哉

그증상을 알지못하면 그 악을 쓰지말지니라 그증상을 열번 진찰하고 그악을 백번생각해서 사용하면 거의 틀림이 없으리라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후회가 있으리니 어찌 삼가지 않으리요

(서운관정공파 사무국장 철호제공)

### 총무공 김시민장군 탄신 451주년 기념행사

지난 9월 23일 10시 30분 충남천안시 목천면에 위치한 "독립기념관 겨례의 집"에서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신 45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행사전 30분간 임진왜란 당시 총무공 김시민장군의 활약상을 영상으로 관람하였다. 10시30분 개회선언에 이어 기념사업회에 참석양면으로 협조하신분들께 표창패수여 및 백일장에 뽑힌 학생들에게 표창

장을 수여했다. 내빈축사에 들어가 대중회 흥식회장의 축사와 박태권 전충남지사의 축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허용기기념사업회회장은 인사말에서 호국영웅이신 김시민장군은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어른이시며 역사적으로 빼어난 인물임에도 역사교과서에 도 미미하게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역사를 배운 기성세대마저도 총무공 이순신장군은 잘알아도 총무공

김시민장군은 잘모르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수 없으며 이는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책임지고있는 분들의 책임이 제일크며 기성세대들도 각성해야한다고 역설하여 장내를 숙연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유지 및 교육계의 전현직 원로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며 대중회에서는 흥식회장 춘교인천증친회장 관목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 찬조금 (2005. 9.1-10.24)
  - 10만원: (郡)수인 (典) 근성 (郡)원중, 강릉증친회 ●5만원: (郡) 용희 계: 450,000(원)
- 봉상회비 (2005. 9.1-10.24)
  - 10만원 (翼)준연
  - 3만원 (郡)문화 우용 (郡)희수 (大)태균 (提)상용 태홍 (按)용희 성희 (翼)수돈 용해 은희 무명1
  - 2만원 (密)중희 (郡)송묵 (典)재은 (副)규빈 수일 인희 (文)현철 (提)태용 평용 남식 준용 (按)관희 선진 태성 재균 경준(翼) 대식 삼용 덕성 대석 원선 도식 황대 수종 윤식
  - 1만원 (密)재국 (郡) 시묵 (文)수섭 재문 (按) 진희 (翼) 용득 명선 무명1 계: 1040,000(원)

(정정)제 87호 회보 봉상회비 2만원 (翼)성목을 상목으로 정정 합니다

### 開城尹公 諱 七霖 時享奉行

지난 10월 9일 개성윤공 종회에서는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에 위치한 묘정에서 종인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향을 엄숙히 봉행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젊은 종친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여 뜻깊은 행사가되었다. 시향봉행후

상국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젊은 종친들이 많이 참석할수 있도록 종회에서 모임을 주선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날 분헌관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종만, 아헌관 정운, 풍헌관 병돈, 축관 창식, 감사 태복

韓國唯一의 族譜出版 綜合工場



組版 CD 및 인터넷 族譜 製作  
印刷 族譜 製冊  
製冊 一貫作業 綜合工場

本社 社屋 全景

## 族譜 出版의 元祖 족보 문집

### 回想社 特徵

1. 創立 50年 歷史와 全國 族譜 90%以上 出版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 出版界의 元祖
2. 春田體(族譜書體) 47,163字 製造 開發로 모든 僻字 完全解決(回想社 獨有 版權)
3. CD 族譜 製作 (既 發刊된 族譜도 CD 族譜 製作)
4. 인터넷 族譜 構築, 홈페이지 製作
5. 編輯, 淨書, 組版, 印刷, 製冊, 頒發 등 모든 工程을 同一工場에서 一貫作業을 할수 있는 綜合工場

### 便宜 提供

1. 門中에 收單, 淨書, 編輯, 校正 등 場所를 本社 및 서울支社에서 無料로 提供
2. 族譜 刊行中 疑問點, 回想文譜院(族譜圖書館)을 利用, 隨電하여 解決
3. 印刷된 用紙, 貯貯 管理, 넓은 工場과 1,000餘坪 以上の 倉庫로 頒發 完了때 까지 無料로 便宜 提供.

想 族譜古書 出版製冊 回想社

본사 大田廣城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253-9881 3 Fax 042/253-9891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모동 350번지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 1412호  
전화 021-718-9881 Fax 021-718-9882



# 복원된 청계천 '소망의 벽'에 선조님들의 詩文 게시



<벽화 앞에서 참석자 일동>

지난 10월 1일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 연구회)에서는 새롭게 복원된 청계천의 <소망의 벽>에 우리 문중 선조님의 詩文 15편을 타일 벽화로 제작하여 준영구 전시토록 하고, <청계천 새물맛이> 행사에 맞추어 이를 기념하는 조촐한 자축행사를 청계천에서 가졌다. 서울시에서 추진하여 47년만에

복원한 청계천의 환학교와 비우담교 사이에는 길이 50m, 높이 2.2m 규모로 된 <소망의 벽>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가로 세로 10cm 크기의 타일에 형형색색으로 제작된 2만여장의 벽화들이 아름답게 수놓여 있는데, 청계천의 각종 시설물 중 사람들의 눈길을 제일 많이 끌고 있는 곳이다. 이 벽화중

에는 안.사.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발용(군)종친의 발의로 시작하여 안.사.연 자체 협의에서 우리 문중 선조님들 중 역사적으로 이름 높은 15분의 발제 詩文을 益洙(제), 榮煥(문), 恒鎭(제) 종친이 번역과 편집을, 聖會(안)종친이 글씨를 써서 제작한 15개의 타일 벽화가 있어 오가는 이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있으며, 우리들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청의 규정과 사정상 더 많은 시문을 실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찾아가는 방법은, 지하철 1호선 신설동(2호선 성수-신설동선)역 9번 출구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도보로 5분 정도 간 뒤, 비우담교를 건너 다음 환학교로 향하는 길 중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 우리 벽화는 남

이름	시문	번역	글씨
益洙(제)	...	...	...
榮煥(문)	...	...	...
恒鎭(제)	...	...	...
聖會(안)	...	...	...

<15개의 선조님 시문 타일-3줄로 배열>

쪽벽 서쪽에서 12번째 중앙에 있다. 게재된 선조님의 시문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사진과 행사 장면은 우리 홈페이지(andongkim.net)의 <사이버 연구회>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 ◇三日浦丹書石-金孝印, ◇福州-金方慶, ◇映湖樓-金沂, ◇扈從白馬山應御製-金永暉, ◇秋興亭詩-金九容, ◇休暇-金齊顏, ◇呈從叔博若齋島配時韻-金休, ◇酒納-金紐, ◇東湖聽鶯-金澍, ◇善老所壽筵詩-金粹, ◇忠武公

- 語錄-金時敏, ◇別恨-金應河, ◇次月中梅韻-金時讓, ◇龍湖-金得臣, ◇나의 所願-金九

기사 제공자 恒鎭(提)



<충렬공의 시-복주>

## 만취당(晩翠堂) 선조 추향 봉행(奉行)

지난 9월 23일 사촌마을 후산사에서 지역유림의 참여와 문중 후손 6.7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매년 秋分일을 정일로 행사를 올린 後山祠는 만취당 金士元선생을 향사하던 곳이다. 선생은 일찍 퇴계문하에 수학할때 陶山

의 월란정사에서 성제 曷蘭秀, 간제 李德弘 선생과 함께 공부하며 친교를 나누었다. 1601년에 돌아가시고 1747년에 후손들이 선조를 추모하여 후산사를 세우고 1775년에 사림의 공위로 위패를 봉안하였다가 1868년 나라의 금령으로 훼손되

었으나 2003년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묘우를 다시 짓고 2004년 추분일에 사림의 공의로 복향고유하였으니 금년이 두번째 향사가 된다. 이날 행사에 수고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다. 初獻: 李有昌氏는 선생과 함께 월란정사에서

공부한 이덕흥선생의 후예로서 陶雲會 副會長이며 예안향교 전교를 역임하였다. 亞獻: 초청된 현관의 有故不參으로 本孫 金聲秀氏가 행사하였다 성수씨는 후산정사 중건과 만취당 중수등 문중의 제반사에 유공하다. 終獻: 李芳秀씨는 後山祠의 봉안문과 상향축문을 지으신 大山 李象

誦 先生의 宗孫이 행사하였다. 執禮: 朴元鎭은 咸陽 朴氏 琴遷 朴成陽 先生의 후손이며 향중유림으로 신망있는 분이 집행하였다. 祝: 柳祐基는 安東水谷의 岐峰 柳復基 先生의 유손으로 유림의 조예가 있는분이 집행하였다. (도평의공파 제공)

## 忠愍祠 追慕 祭享 奉行



지난 10월 10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에 위치한 충민사에서 유림제위 및 내외빈,

종친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향을 봉행하였다. 금년이 충무공 김시민장군께서

임진왜란 삼대첩중의 진주대첩을 거두시고 순국하신지 四百十三年이 되는 해이다. 祭享봉행후 안병태충민사원장은 인사말에서 장군의 숭고한 애국충절과 호국정신을 기리고 앞으로 추모제향에 많은 애국시민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병태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문영공학용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추모제향에 바쁘신중에도 많은분들이 참석해주신데 대하

여 감사하다는 말씀과 우리安東金門의 어른이신 충무공김시민장군께서는 임진왜란당시 충무공 이순신장군에 못지않은 공훈을 세웠음에도 그 위상이 멀어지는것 같아 후손으로써 부끄럽고 송구스러우며 이는 우리후손의 책임이 크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쳤다. 모든행사를 마치고 충민사마당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중식을 들며 담소를 나누고 오후2시경 해산하였다. (대중회 제공)

## 訃音



대중회 이사인 익원공파 김재기 현종께서 지난 10월 10일 숙환으로 별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향년 75세



<백범 일지>를 읽고서.

# -신의 축복을 받으신 분-



전남 장진군 대구중앙초 1학년 김보라 (군사공과, 장진 거주 정재이 중장의 딸)

이 세상의 사건들은 대체로 단순한 이분법이긴 하지만 선(善)과 악(惡)이란 대립구조로 나타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여 '신과 악마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백범일지의 배경인 일제강점기의 여러 사건들도 이 '신과 악마의 게임'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속에서 신(神)은 김구 선생을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한다. 간혹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지만, 다른 독립운동가 처럼 일찍 운명하시지도 않으셨고,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기쁨도 누리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백범선생이 1949년에 별세하셨는데 이는 6.25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이다. 만약 살아 계셨다면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을 보셔야 했고, 또한 운몽으로 이 전쟁을 막으려 고생하셨을 것이며, 독립운동의 결과가 민족끼리의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변한 것을 보고 독립운동에 대한 허탈감에 빠져 가슴 아파하셨을 것이다. 아마도 신(神)은 김구 선생님께 이 고통스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미리 데려가셨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유는 한 사람이 살면서 평생토록 겪은 그 많은 경험들을 글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데,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웠던 시절을 더욱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백범일지>를 세상에 남겼기 때문이다.

나에겐 얼마 전에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던 사건이 있다. 바로 백범일지를 읽은 일이다. 더욱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와 같은 안동김씨요, 같은 충렬공 선조님의 후예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읽었던 것이다.

대체로 '안동김씨'라고 하면 부유한 양반가의 집안만으로 인식하는데, 김구 선생님은 헛대 조상님의 형제 되시는 한 선조님이 권력 다툼에서 역술하게 역적으로 물리시는 바람에 가난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김구 선생님이 태어난 해에 독립운동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부자 양반이셨더라면 많은 재물로 백성들을 보살피시기도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천일과가 되어야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백범은 양민이었기에 일반 상민들의 심정과 나라의 상태를 잘 알았기에 더욱 훌륭하게 되셨다고 본다. 나는 김구 선생님이 태어난 해에 가난했던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김구 선생님을 떠올릴 때 애국심이 매우 강하신 분으로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백범일지와 집필 동기와 백범이라는 호에서 더욱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언젠가는 다칠 불시의 죽음을 예상하여 이 일지를 남겼다고 했다. 결국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신의 삶을 적은 자서전이란 뜻이

다. 또 '백범(白凡)'이란 호는 '백정', '범부'라도 자신과 같이 애국심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으로 지은 것이라 한다.

이 백범일지 중에서 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 2가지를 떠올려 보겠다. 첫 번째로는 이봉창선생의 폭탄사건이다. 이봉창 선생이 김구 선생에게 와서 '일본천황이 능행(陵行)할 때 폭탄만 있었다면 죽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개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죽고 싶다고 말할 때 나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영원한 쾌락을 위해 죽는다는 그 말이 감동적이지 않는가! 그 후 이봉창 선생은 자신의 의지대로 거사를 결행하셨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일본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작전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했고, 폭탄을 던질 의지는 정말로 존경스러웠다. 또한, 도망가지도 않고 담담히 경찰에게 잡혀가서 미리 준비한 자신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하고 싶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날 이후로 김구 선생님은 계속 천황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인재를 구하려 다녔는데, 어느 날 윤봉길의사가 찾아와서 자신도 동경 사건과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자 이를 위해 도시락과 물통에 폭탄을 설치하고, 일본 천황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드디어 사건 당일(1932. 4. 29) 아침, 윤봉길의사는 김구 선생에게 6원과 시계를 주면서, 자신은 앞으로 1시간만 시계를 보면 더 이상 시계를 볼 일이 없다면 남은 김구 선생님의 시계를 자신의 새것과 바꾸자고 할 때 나는 윤봉길의사에게서 심장이 멎는 듯한 감동을

받았다. 윤봉길의사의 말속에 숨겨진 깊은 정(情)과 뜻이 헛속 깊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신도 나처럼 감동을 받았을까? 비록 천황을 죽이는 기회는 얻진 못했지만 일본의 고위 간부 여러 명을 죽이고 또 부상을 입혔다. 이 정도면 처음 무턱대고 폭탄테러를 생각했을 때보다는 훌륭한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노력과 성과들이 쌓여서 결국 승리의 신은 우리 한국의 손을 들어주어, 일본천황의 항복 선언과 함께 아프고 쓰러졌던 일제강점기도 막을 내리게 하였다.

모든 일은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지니기 마련이다. 일제강점기 때의 해로운 점이야 무수히 많았지만 그에 반해 우리에게 이로웠던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애국심, 민족의식, 민족의 정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민족끼리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남북전쟁으로 또 다시 우리는 큰 상처를 안고 말았으며 그 후 남북분단이

라는 비극적 현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죽어서라도 김구 선생님께 얼굴을 들고 감사 인사를 올리려면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야 하리라 본다.

백범일지를 읽는 동안은 나는 인쇄실테스트도 함께 해야 했다. 170장 분량의 책과, 아직 한국사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는 나였기에 책 속의 모든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독후감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백범일지를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다. 하지만 백범일지를 통해서 작지만 일제강점기 때 가슴 아팠던 민족의 설움을 알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애쓰셨던 독립운동가들의 뼈아픈 노력과 고달픈 심정들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되어 감사하기만 하다.

그리고,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던 백범일지는 한국사를 좀 더 공부한 후에 다시 읽어봄으로써 완전히 이해하는 기회를 꼭 가져보려 한다. 그러려면 김구 선생님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섭렵한 뒤야 가능할 것이다. 그때는 백범일지의 원본을 구해서 일제강점기시대 사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더 큰 감동과 기쁨을 얻으며 읽으리라.

\*편집자 주 : 본 독후감은 지난 2005년 9월 23일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andongkim.net)에 본인 김보라양이 게재했던 것을 이곳에 옮긴 것임.

편집 제공자-恒鎮(제)

## 韓國姓氏總鑑

Encyclopedia on the clans of Korea

韓國姓氏總鑑聯合會 編

韓國姓氏總聯合會

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성동 805-24 2층 (우편번호 391-01) | 전화: 02-333-1506-1508 | FAX: 02-333-2877 | 홈페이지: www.gondar.or.kr | 이메일: ssp@kshf.com

## \* 향 전 원 에 \*

(경조화환/화분)

대표 김재균

전화 : 783-3166, 783-3167, 780-8477  
 팩스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프린스텔 1층 12호)